

# 겉모습만 ‘韓 AI’... “해외 의존 벗어난 독자적 모델 필요”

SKT·KT, LLM 오픈소스 공개  
통신사 주도 AI 주권 확보 움직임

공개 모델, 외산오픈소스 활용  
독립적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핵심 알고리즘 등 해외 기반 ‘한계’

SK텔레콤과 KT가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소버린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K-AI 대표 모델’ 공모와 맞물려 통신사 주도의 AI 주권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두 회사 모두 ‘한국적 AI’를 전면에 내세우며 생태계 확산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핵심 파운데이션 모델을 외산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적 AI’라는 구호와 달리 기술 주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과 KT가 ‘허깅페이스(Hugging Face)’를 통해 자체 개발 LLM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자사 LLM ‘A.X (에이닷 엑스) 4.0’을 글로벌 AI 오픈소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 엑스 4.0’의 학습을 진행한 SK텔레콤 슈퍼컴퓨터 ‘타이탄’을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SK텔레콤

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 공개된 모델은 720억 매개변수 규모의 표준형과 70억 파라미터의 경량형 2종이다. 이 모델은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LLM ‘Qwen 2.5’를 기반으로 대규모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 제작됐다. SKT는 “GPT-4o 대비 한국어 처리 효율이 약 33% 높다”며, 향후 수학·코딩 능력을 강화한 추론형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KT도 자체 개발한 ‘믿음 2.0’을 공개했다. ‘믿음’ 시리즈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 맥락에 최적화된 LLM을 지향하며, 이번에 공개된 2.0 모델은 115억·23억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소형 모델로 구성된다.

KT는 “저작권 이슈가 없는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됐다”고 밝혔으며, 향후 GPT-4 기반의 협업 모델과 고성능 버전인 ‘믿음 프로’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LLM 오픈소스 공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1일까지 공모 중인 ‘K-AI 대표 모델’ 선정 사업과도 관

련이 깊다. 대표 모델로 선정된 기업은 ‘K-AI’ 명칭 사용과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통신사 외에도 네이버,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코난테크놀로지 등이 참여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모델 대부분이 ‘외산 기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한 파생형’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다. SK텔레콤의 A.X 4.0은 알리바바의 Qwen 2.5를 기반으로 했고, KT 역시 GPT-4 기반 협업 모델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어 최적화’에 초점을 둔 파인튜닝 모델에 가까워, 근본적으로 독립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자립의 문제를 넘어, AI 주권을 내세우는 ‘소버린 AI’라는 개념 자체의 모순을 드러낸다. ‘한국적 AI’를 외치지만, 핵심 알고리즘과 구조는 여전히 해외 오픈모델에 의존하는 구조다. 기술의 뼈대를 설계하지 못한 채 피부에만 로컬 특색을 입히는 식이다. 소위 ‘데이터 주권’과 ‘기술 독립’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을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로 자체 설계·학습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향후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픈소스 기반 모델은 저변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출처가 외국 기업일 경우 업데이트·개방 여부, 라이선스 변경 등 핵심 변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결국, 우리가 쌓는 AI 생태계는 언제든 ‘상위 모델의 변심’에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 위에서 있는 셈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소버린 AI’는 단순히 한국어 지원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주권 확보와 독립적 기술 생태계 조성을 핵심으로 삼는다. 하지만 알리바바 등 해외 오픈모델 기반에 의존한 현 방식은 결국 해외 기술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도 남는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오픈소스를 통한 기술 공유는 국내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진정한 소버린 AI를 위해서는 해외 기술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에 대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LG CNS-코히어, 추론형 LLM 공동개발

고객사에 온프레미스 방식 제공 예정  
압축기술 통해 GPU 2장으로 구동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 LG CNS는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 코히어(Cohere)와 손잡고 1110억개의 파라미터를 갖춘 추론형 LLM(거대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LG CNS는 금융, 공공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국내 고객들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코히어와 협력해 추론형 LLM을 만들었다. 추론형 LLM은 AI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여러 변수를 고려한 논리적인 해답을 도출하는 모델

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로 꼽힌다.

LG CNS는 코히어와 함께 개발한 초대형·경량형 2종의 LLM과 국내 대표 AI 모델인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 등 다양한 거대언어모델 라이선스를 통해 고객이 맞춤형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G CNS는 LLM을 온프레미스(자체 구축형) 방식으로 제공해 고객사들이 민감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 없이도 자체 인프라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사가 이번에 내놓은 LLM은 모델 압축 기술을 통해 2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만으로 구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고객사들은 회사의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LLM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확보하고, 데이터와 인프라 통제력을 갖춘 ‘소버린(주권형) AI’를 실현할 수 있다.

양사의 LLM은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는 물론 히브리어·페르시아어 등 소수 언어를 포함해 총 23개 언어를 지원한다. 이 중, 한국어 평가 테스트(KM MLU)에서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LLM 중 현존 최고 수준의 성능을 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hik1@

## KT-트림블, 정밀측위 통합 서비스 제공

5G·LTE 통신 인프라 결합

KT가 트림블과 협력해 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정밀측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일 밝혔다.

KT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정밀측위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기술 연구와 함께 파트너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트림블은 미국에 위치한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정밀측위 등 다양한 위치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 중이다.

KT와 트림블은 위성 기반의 위치항법 시스템(GNSS)의 데이터 오차를 보정하는 트림블 RTX 패스트에 5G 및 LTE 통신 인프라를 결합해 고정밀 측위 서비스로 고도화했다. /김서현 기자

위치 항법 시스템은 전세계의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솔루션으로 지도 앱이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된다. 하지만 위성 데이터 특성상 터널이나 지하, 건물 안 등 위성 정보를 수신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위치 계산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위성 신호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며 신호 지연, 건물이나 지형에 의한 경로 간섭 등 다양한 오차 요인에 영향을 받아 정확한 위치 산출을 위한 보정 기술이 필요하다. 이 때 KT의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해 트림블의 고정밀 위치 보정 데이터를 제공하면 기존 한계를 보완하며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LG U+, AI 스타트업과 동반성장 협력

50억 규모 전용 펀드 조성

LG유플러스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초기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기업-스타트업 간 AI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단순한 재무적 지원을 넘어, 실제 협업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닷테크 전문 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함께 5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4개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는 AI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슈프트(shift)’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슈프트’는 유망한 초기 AI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술 협업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들과 실증(PoC), 기술 연계, 사업화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력에 나선다.

이번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페어리 ▲르몽 ▲테크노매트릭스 ▲에임인텔리전스 등 4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슈프트 1기를 통해 선발됐다. 페어리는 실시간 사용자 정보 추출 기술을 개발 중이며, 르몽은 소상공인 대상 영업·마케팅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테크노매트릭스는 AI 모델 재학습 자동화 기술을, 에임인텔리전스는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을 각각 개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들 기업과의 PoC를 통해 기술 실증과 사업성 검증을 마쳤으며, 향후 연구·개발(R&D) 자원과 기술



김지훈 LG유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상무가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진행된 성과 공유회 ‘슈프트 업 데이(shift up Day)’에서 발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인프라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 슈프트를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 정부, 대기업, 국내외 파트너 간 연결을 강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사업 검증, 상용화, R&D,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형태다. /김서현 기자

## SKB, 소상공인 맞춤형 인터넷 상품 선택

‘든든 인터넷’ 피해 보상 혜택 추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인터넷 상품 ‘든든 인터넷’을 10일 출시했다. 인터넷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매장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 혜택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든든 인터넷’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는 피싱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금전 피해에 대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가(Giga) 인터넷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매장 내 POS, 카드 단말기, PC, 노트북,

TV 등의 고장 수리에 대해 1회 최대 5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채감 혜택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제조업체는 PC·노트북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든든 인터넷’ 요금제는 총 6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장 환경에 따라 인터넷 속도(100M/500M/1G)와 와이파이 또는 증폭기(윈즈)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 혜택이 포함된 ‘든든 기가라이트’ 요금제는 3년 약정 기준 월 3만4100원(부가세 포함)이며, IPTV나 가족 결합 시 최대 월 2만31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